

NEWS LETTER

2021년 5월 17일 Vol. 407

위암·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위암·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유방암은 7회 연속, 위암은 5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평가결과 유방암 적정성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을 받았으며 위암 적정성평가에서 99.27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 기준은 △암 치료 전문인력 구성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적정 시행 여부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진료비 등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국내 최상급 수준의 의료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을 통해 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계획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년 숲을 걷다’ 봉선사 자비순례 참여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5월 11일 상월 만행결사 ‘천년 숲을 걷다’ 봉선사 자비순례에 동참했다.

이날 자비순례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을 중심으로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 50여명이 함께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에서는 김민호 기획처 경영관리실장을 비롯해 최기석 일산행정처장, 지도법사 능지 스님 등 10명이 참석했다. 또 동국대학교법인 사무처와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교직원 및 일반 대중 등 총 800여명이 순례에 참여했다.

순례에 동참한 대중 모두는 발열체크와 안심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전 10시 봉선사 일주문 주차장을 출발해 자비순례를 열었다. 특히 이날 봉선사 자비순례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천년광릉숲길 10여km를 포함 총 13km를 약 4시간에 걸쳐 사부대중과 함께 걸었다. 지도법사 능지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자비순례에 동국대학교의료원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있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힘을 내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를 극복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꽃 나눔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연우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5월 12일 5층 법당에서 ‘연꽃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연꽃 나눔은 연우회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것으로 이날 연등과 연꽃 약 300개를 각 부서에 전달했다.

지도법사 능지스님은 “휴식시간을 내어 연꽃 만들기에 참여해준 연우회원들의 헌신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봉사에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가피로 교직원과 환우들의 건강을 발원하며 연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어버이날 맞아 환자에게 카네이션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5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의료진과 직원들은 입원환자들에게 가족들을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은 물론 면회도 제한된 상황에서 병원이 준비한 이벤트다.

김도연 센터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잠시나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준비한 카네이션과 선물이 어버이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